

원고 집필의 실제

권 인 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이 글은 “종합국어대사전” 원고 집필의 첫 해인 1994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작업의 현황과 그 경과를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1994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단계별로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1993년에 행해진 작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원고 집필은 크게 준비 작업, 원고 집필 의뢰, 집필 원고의 접수, 원고 교열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고 교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에 대해서만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 집필 과정을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의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실명을 밝히지 않고 서술해 나가기로 하겠다.

2. 준비 작업

2.1 집필 지침의 마련

사전 편찬의 성패는 편찬의 목적에 합당한 좋은 집필 지침의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

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하다. 집필 지침은 원고 집필의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전 편찬 작업의 지침도 되기 때문이다. 집필 지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편찬의 실제 작업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필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은 1993년 2월 초에 시작되었다¹⁾. 처음에는 사전편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 3인과 편수원 5인이 기존 사전의 표제어 비교 카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전 원고를 직접 집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각자가 맡은 표제어의 원고를 집필한 후, 1주일에 한 차례씩 집필된 원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에서 사전 편찬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필 지침에 관련된 큰 줄기가 논의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문제도 있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다수결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도 있었다. 뒤에 재론에 부쳐 수정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 때에 비로소 현재의 사전 편찬을 위한 작업 지침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시험적인 집필과 집필 지침을 정해 나가는 작업이 표제어, 뜻풀이, 자료의 세 분과 간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진행되어 사전편찬실에서 최초로 '집필 지침(시안)'을 내놓은 것이 1993년 7월 말에 발행된 『**중합국어대사전**』 시험 집필 300 단어집』의 <부록 1>이다. 그 내용은 (1)기술 체계, (2)표제어부, (3)발음 표시부, (4)문법 정보부, (5)뜻풀이부, (6)기타의 여섯 가지 부분에 걸친 원칙들이다. 이어서 이에 대한 원내·외 인사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먼저 8월 중·하순 약 2주 간에 걸쳐 원장, 각 과·부장 및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원내 인사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9월에는 사전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거나, 사전 편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출판사 인사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11월에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 위원들께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시험 집필한 300단어 원고에 대한 세 차례의 검토 의견서를 모아 뜻풀이 분과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11월 말에 300단어집의 수정을 완료하게 되었고(이를 인쇄하지는 않았음), 12월 중순에는 이 수정 원고 및 집필지침(시안)에 대한 검토를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학계 인사 8인을 포함한 총 10인의 검토 위원들²⁾께 최종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 때에는 분야별로 책임을 정하여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하였다.

1) 사전편찬실의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 집필을 시작하면서 사전 편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3년 2월 4일이고, 집필된 원고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것은 1993년 2월 11일이다.

2) 실제로는 11분의 검토 의견서가 접수되었는데, 그것은 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던 임흥빈 교수(서울대)께서도 검토에 참여하셨던 결과이다.

1994년에 들어서서 원고 집필을 4월부터 시작하도록 일정이 짜여 졌다. 이를 위하여 3월 말까지 각 부분별로 책임자를 정하여 기존의 집필 지침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1994년 3월 말에 “『중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을 발행하였다. 그 내용은 I. 표제어, II. 뜻풀이, III. 어휘 부류별 세부 지침, IV. 어원, V. 발음, VI. 문법 정보, VII. 참고 정보, VIII. 용례, IX. 관용구·속담의 아홉 가지 부분의 원칙과 실제 집필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이 집필 지침이 1994년 4월 15일부터 시작된 원고 집필 의뢰에 직접 이용되었다.

그리고 실제 집필에 참여한 여러 집필자들에게서 집필 지침이 뒤에서 소개할 ‘전산 원고 작성 지침’과 기호의 사용 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집필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1994년 8월에는 “『중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 -일반어 집필사용-”의 수정본을 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수정본은 원의 집필자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는 ‘발음’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집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내용들을 줄여서 제작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앞의 “표제어 1, 2” 및 “뜻풀이 1, 2”에서 자세히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집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³⁾.

2.2 원고 작성 양식의 준비

집필 지침이 거의 완성될 무렵부터 원고 작성 양식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의 원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대부분의 집필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산 원고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지 사용을 대신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초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4월 15일 집필 의뢰시부터 약 한 달 간 사용되었던 원고지 양식은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사전 편찬의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집필시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충분히 고려한 원고 양식이 아니었음을 덧붙이고 싶다.

5월 초에 자료 분과의 협조를 얻어 “전산 원고 작성 지침”을 확정지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1행에 40자가 될 수 있는 입력 환경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고 형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되, 여기에 필요한 기호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 때 기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판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함을

3) 아직도 집필 지침이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정본 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1995년 1/4분기 안에 집필 지침 최종본을 낼 계획으로 있다.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 형식)

#! V카드번호	☞ 'V'는 한 칸 띄움을 표시한 것임.
#1 V표제어	
#2 V원어	
#3 V활용 정보	
#4 V【문형정보】V「1」V뜻풀이 V\=V용례 V\ \$	
「2」V뜻풀이 V\=V용례 V\ \$	
「3」V뜻풀이 V\=V용례 V\ \$..... V*V주의	
#5 V「비」V관련 어휘 V「반」V관련 어휘.....	
#6 V참고 어휘	
#7 V관용구 목록	
#8 V주표제어	

위의 원고 형식에서 #!~#6까지는 모든 표제어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들이므로(해당되는 정보가 없을 때에는 '%'으로써 정보 없음을 나타냄) 8월 23일 이후의 집필 의뢰시부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필자별 원고 양식을 다음과 같이 표제어 일련 번호(#!), 표제어(#1), 원어 정보(#2)까지를 기존 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일로 제공하게 되었다.

(제공된 원고 양식의 예)

#! H-047950

#1 올-나이트

#2 allnight

#3

#4

#5

#6

#! H-047963

#1 올데갈데-없다

- #2
- #3
- #4
- #5
- #6

#! H-047967

- #1 울들-
- #2 兀突
- #3
- #4
- #5
- #6

2.3 집필자 선정

집필 지침을 준비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좋은 집필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종합국어대사전”은 국가적인 중요 사업이니만큼 현재 우리 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차원에서 집필자 선정 작업에 임하였다.

집필자 후보의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은 1994년 2월 말경부터 시작되었다. 각 대학의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학 전공자로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본 결과 100여 명(현직 대학 교수 포함)에 이르렀다. 우선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된 것은 교통, 통신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후보 명단 중에서 아직 대학에 전임으로 진출하지 못하여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전문 집필자로 선정하여 원고 집필을 집중적으로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대학 소속 학과의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1994년 4월 15일 1차 전문 집필자 10명을 선정하여 원고 집필 의뢰를 시작하게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6월 23일 2차 전문 집필자 11명을, 7월 28일 3차 전문 집필자 10명을 선정하였다⁴⁾.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집필자를 선정한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 집필자 후보

4) 1차와 2차 전문 집필진에서 각 1명씩 개인 사정으로 원고 집필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때까지 확보한 전문 집필자는 총 29명이었다.

를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학에 전임으로 재직 중인 분들을 중심으로 집필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8월 23일 1차로 15명의 일반 집필자를 선정하였고, 10월 7일 2차로 15명의 일반 집필자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일반 집필자라고 함은 위에서 말한 전문 집필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의뢰 횟수 및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필자를 가리킨다. 전문 집필자에게는 적게는 세 차례, 많게는 여섯 차례에 걸쳐 집필을 의뢰하였으나, 일반 집필자에게는 한 차례씩만 집필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상이 1994년 10월까지의 집필자 선정 상황이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4차 전문 집필자 10명(11월 18일), 3, 4차 일반 집필자 각 10명(11월 11일, 11월 25일)을 더 선정하게 되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전문 집필자의 경우 어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문학 전공자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1994년에 이루어진 원고 집필 과정에는 전문 집필자 39명, 일반 집필자 50명 총 89명의 집필자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2.4 집필 의뢰 목록의 작성

다음 단계는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집필 의뢰할 표제어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한 작업은 표제어 분과에서 완성한 표제어 목록을 바탕으로 원외에 집필을 의뢰할 표제어와 원내에서 집필할 표제어를 구분하여 이 중에서 원외에 집필을 의뢰할 표제어를 집필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된다.

처음에 원내에서 집필하거나 별도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결정하여 집필 의뢰를 보류한 전문어, 문법 형태소, 고어, 방언 해당 표제어들은 의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전문어와 문법 형태소는 원내에서 집필하기로 하였고, 고어와 방언은 별도의 작업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정하였다. 또한 표제어 분과에서 기존 사전의 표제어 중에서 삭제하기로 한 표제어들과, 비표준의 표제어를 표준형으로 보내거나 '~의 어근' 등으로 처리한 단순 항목들도 의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자료 분과에서 집필자별, 항목 크기별(기존 사전의 집필 분량을 참조하여 기본 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분류)로 목록을 작성하여 뜻풀이 분과에 제공하였는데, 1차 전문 집필자 중에서 2명은 동사류 표제어(정확히 말하면 기본 표제어가 용언인 표제어)를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4월 초에 자료 분과에서 뜻풀이 분과로 제공된 표제어 목록은 'ㄱ'항을 대상으로 동사류 집필자의 항목 크기별 목록 2부와 나머지 일반 표제어 집필자의 항목 크기별 목록 8부였다. 동사류 집필자를 따로 둔 것은 문형 정보의 효과적인 집필을 위해서였다. 이 목록을 가

지고 뜻풀이 분과에서는 한 달 평균 소항목 240개를 집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집필 분량이 균등해지도록 분배하였다. 균등 분배는 전체 집필 분량이 균등해지도록 분배하는 방법과 단순히 항목수가 균등해지도록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따랐으나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편의상 후자의 방법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1, 2차 전문 집필자들을 원고 집필 의뢰 및 원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어 의뢰 목록에서 제외된 표제어의 종류가 더 늘어났다. 첫째로는 북한어(정확히 말하면 북한 사전에만 있는 표제어)의 경우 우리의 표준어에 대응시키는 작업을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편찬실에서 일괄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원외에 집필을 의뢰하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로는 자료 분과에서 개발한 표제어 분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문제로 표제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 크기를 공란으로 둔 표제어들은 의뢰시에 예상량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 목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셋째로는 원고 접수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표제어 검토 과정에서 새로이 만든 표제어(대부분 '~하다, ~되다'의 파생어) 중에서 일련 번호를 주지 않은 경우는 원고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역시 의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접수된 원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검색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정보가 바로 각 표제어별 일련 번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표제어들은 데이터베이스 수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집필 의뢰를 보류하게 되었다.

한편, 처음에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가 방침을 변경하여 집필 의뢰된 표제어도 있는데, 그것은 방언 표제어 중에서 표준어에 대응형이 없는 경우였다. 이것은 편찬실 내에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표제어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또한 표제어 목록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필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한 표제어의 기본 표제어를 복수로 잡았을 경우 총 표제어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표제어를 복수로 생성하게 되었고(물론 각 경우의 기본 표제어는 달리 잡혀 있지만), 이리하여 똑같은 표제어가 같은 집필자에게 중복 의뢰되거나, 서로 다른 집필자들에게 분배되는 일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해당 표제어를 복수로 목록에 실되, 집필해야 하는 표제어 앞에는 “)” 표시를, 집필하지 않고 참고만 하는 표제어 앞에는 “(” 표시를 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표제어 분배 및 의뢰 목록 작성 작업은 처음부터 전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상당 기간 수작업이 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장황하게 시행착오의 과정

을 소개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사전 편찬에 착수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여러 우수국철의 과정을 겪은 끝에 9월 경부터 자료 분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LA.PR.G)을 이용하여 집필 의뢰 목록을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최근에 의뢰된 목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목록 작성 작업은 기존 사전의 비교 카드를 찾는 작업과 용례 추출 작업을 고려하여 늦어도 집필 의뢰일 2주 전에 끝나야 했다.

〈원고 집필 의뢰 목록〉

집필자 : ○ ○ ○

날 짜 : 19 . . .

집필일	일련 번호	표 제 어	처리 : 품사	기본 표제어	비 고	예상량	집필량
	H-047909	울근-불근01	(: 부)			<1.0>	
	H-047913	울근불근-하다01	(: 동)	울근불근01		<1.0>	
	H-047910	울근-불근02	(: 부)			<1.5>	
	H-047914	울근불근-하다02	(: 동)	울근불근02		<1.0>	
	H-047911	울근-불근03	(: 부)			<1.0>	
	H-047915	울근불근-하다03	(: 형)	울근불근03		<1.0>	
	H-047919	울긱-불긱	(: 부)			<1.0>	
	H-047921	울긱불긱-하다	(: 형)	울긱불긱		<1.0>	
	H-047932	울깍	(: 부)			<1.0>	
	H-047933	울깍-거리다	(: 동)	울깍		<1.0>	
	H-047934	울깍-대다	(: 동)	울깍		<1.0>	
	H-047935	울깍-울깍	(: 부)	울깍		<1.0>	
	H-047937	울깍-하다	(: 동)	울깍		<1.0>	
	H-047936	울깍울깍-하다	(: 동)	울깍울깍		<1.0>	
	H-047950	울-나이트(allnight))	(: 명)			<1.0>	
	H-047952	울-내년(-來年)	(: 명)			<1.0>	
	H-047963	울데갈데-없 : 다	(3 : 형)			<1.0>	
	H-047967	울돌-(兀突)	(:)			<1.0>	
	H-047968	울돌-하다	(: 형)	울돌		<1.0>	
	H-047969	울 : -되다01	(: 동)			<1.0>	

2.5 기존 사전 카드의 복사 및 용례의 검색

집필 의뢰 목록이 완성되는 대로 표제어 분과에 대해서는 목록에 해당되는 기존 사전 비교 카드(92~93년에 작업한 것으로 B4 크기, 약 63만 장 보유)를 찾아 A4 크기로 축소 복사를 요청하였고, 자료 분과 내 용례 검색 담당자에게는 연구원에서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표제어에 해당되는 용례를 검색해서 출력지 또는 파일로 넘겨주도록 요청하였다.

기존 사전 카드를 찾는 작업은 편찬실 내 편수보조원들이 담당하였고, 이의 복사는 처음에는 연구원 보유 복사기를 총동원하여 복사하도록 하다가 집필 의뢰되는 양이 늘어 나서 편찬실 인력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시점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맡겨 복사하도록 하였다. 외부에 용역하여 복사가 끝난 때부터는 편수보조원들이 복사된 카드를 찾는 것으로 작업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카드가 잘못 찾아 겹거나 있어야 할 카드가 빠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집필자가 뜻풀이 분과에 연락을 하면 다시 제대로 찾아서 우송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용례 검색 작업은 구축된 자료의 양과 질, 검색을 뒷받침할 컴퓨터의 용량과 속도에 따라 일의 진척도에 상당한 가변폭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색해야 될 표제어 항목수가 늘어날수록 이 일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검색 대상 문헌을 줄이거나 용례 검색 방법도 매우 거칠게 하는 등의 조정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초기에는 연구원에서 개발한 문자열 검색 프로그램(HGREP.EXE)을 이용하여 대상 표제어 하나하나를 검색하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 표제어 중심으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 최종에는 대상 문헌의 모든 어절을 검색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거기서 집필 의뢰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 또는 파일로 제공하게 된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사정과 관계된다. 이렇게 할 경우 검색 작업에 드는 품은 많이 덜 수 있으나, 검색 결과물은 정작 필요한 정보보다는 불필요한 정보로 가득찬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다. 특히 자주 쓰이는 특정 용언의 활용형이나, 고유 명사 등이 다양으로 검색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용언의 활용형이나 고유 명사 등을 삭제하여 용례 자료를 제공하는 하였으나 용례 자료에 대한 집필자들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는 없었다⁵⁾.

5) 이러한 문제는 사전 편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구축, 용례 검색 및 검색된 자료에 대한 수정 작업이 완료되어야 원고 집필 의뢰 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용례 검색 자료를 출력지로 제공할 때와 파일로 제공할 때는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출력지의 경우는 집필자가 찾아보기는 편리하나 그 용례를 인용할 때는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파일의 경우는 화면상에서 자료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인용할 때는 해당 부분을 복사하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모든 집필자에게 파일로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왜냐 하면 집필자들이 가진 컴퓨터의 용량 또는 전산 원고 작성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문서 작성 프로그램("훈글")의 판(version)에 따라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필자의 요청에 따라 출력지 또는 파일로 제공하게 되었다.

3. 원고 집필 의뢰 및 집필 원고 접수

3.1 집필 지침 설명 및 집필 의뢰

앞 장에서 말한 준비 작업이 대개 집필 의뢰 예정일 하루 전에 완료되었다. 그 사이에 집필자와 연락을 취하여 집필자 회의 날짜를 정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에 집필 지침을 함께 우송하여 지침에 대하여 미리 읽어 오시도록 부탁하였다.

집필자 회의의 준비물은 집필 지침, 전산 원고 작성 지침, 집필 의뢰 목록, 용례 검색 자료 등인데 회의일 오전 중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였다.

회의에는 원장, 어문규범연구부장, 사전편찬실장, 필자, 임동훈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회의의 진행은 원장의 인사 말씀, 부장의 부탁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필자가 준비된 자료 및 전산 원고 작성 지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임동훈 연구원이 집필 과정에서 잘 틀리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집필 지침을 설명하는 순서로 하였으며, 회의는 대개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 이상이 집필 의뢰시의 회의 내용이다.

한편, 전문 집필자의 경우는 집필 의뢰 후 2주일 안에 30항목 내외로 우선 집필 해서 편찬실로 보내주도록 하였고, 이를 교열을 보아 집필자들이 전형적으로 잘 틀리는 부분들을 모아 집필자 회의를 다시 열어 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다. 또한 집필자들의 집필 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집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듣는 회의도 있었다. 이러한 회의는 약 한 달 반 내지 두 달간의 시험 집필 기간에만 소집되었다. 시험 집필 기간이 끝난 전문 집필자들에게는 특별한 회의 없이 집필 의뢰일에 준비된 자료를 직접 찾아가거나, 요청에 따라서는 우송도 하는 방식으로 집필 의뢰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1994년에 있었던 집필 의뢰 상황을 일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월 : 전문 1차(10명) 1차 설명회 및 시험 집필 의뢰(4.15.//2,400항목)
- 5월 : 전문 1차(9명) 2차 설명회 및 시험 집필 의뢰(5.16.//1,564항목)
- 6월 : 전문 2차(11명) 1차 설명회 및 시험 집필 의뢰(6.23.//942항목)
 전문 1차(9명) 3차 집필 의뢰(6.21.//1,902항목)
- 7월 : 전문 2차(10명) 2차 설명회 및 시험 집필 의뢰(7.8.//1,659)
 전문 1차(9명) 4차 집필 의뢰(7.21.//2,577항목)
 전문 3차(10명) 1차 설명회 및 집필 의뢰(7.28.//1,659항목)
- 8월 : 전문 2차(10명) 3차 집필 의뢰(8.6.//3,922항목)
 전문 1차(9명) 5차 집필 의뢰(8.18.//4,306항목)
 일반 1차(15명) 설명회 및 집필 의뢰(8.23.//13,360항목)
 전문 3차(10명) 2차 시험 집필 의뢰(8.25.//2,948항목)
- 9월 : 전문 2차(10명) 4차 집필 의뢰(9.1.//4,967항목)
 전문 1차(9명) 6차 집필 의뢰(9.15.//8,994항목)
 전문 3차(10명) 3차 집필 의뢰(9.22.//9,888항목)
 전문 2차(10명) 5차 집필 의뢰(9.29.//14,822항목)
- 10월 : 일반 2차(15명) 설명회 및 집필 의뢰(10.7.//12,912항목)
- 11월 : 일반 3차(10명) 설명회 및 집필 의뢰(11.11.//6,184항목) <계약 이월>
 전문 4차(10명) 설명회 및 집필 의뢰(11.18.//9,442항목) <계약 이월>
 일반 4차(10명) 설명회 및 집필 의뢰(11.25.//9,424항목) <계약 이월>
- 12월 : 전문 1, 2, 3차 합동(25명) 집필 의뢰(12.9.//26,072항목) <계약 이월>

결과적으로 1994년에는 20차에 걸쳐 약 13만 항목의 표제어를 집필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11, 12월에 의뢰된 51,122항목은 계약 이월의 절차를 거쳐, 시간적으로 1994년에 원고 집필을 마감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원고료 집행을 1995년으로 미룬 것이다.

3.2 집필 원고의 접수 및 원고료 집행

집필자들이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뜻풀이 분과 소속 편수보조원들이 원고의 실제 분량을 계산한 다음 원고를 교열반으로 보내게 되고, 교열반에서는 이를 시험 집필 기간

동안에는 전부 교열을 보고 원고 수정하도록 하였다. 본격 집필 의뢰 후에는 표본 교열을 보아 원고 제출시마다 교열 결과를 집필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고료는 최초 접수시의 원고 분량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이것은 교열반에서 모든 원고를 다 교열을 볼 여력이 없으므로 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교열 후 수정된 원고의 분량을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12월 9일 집필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12월 14일에 열린 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 추인을 받았다. 즉, 제출된 원고의 20%를 표본 교열한 결과 재집필이 요구되는 항목이 20%를 넘을 때에는 전 항목 원고의 재집필을 요구하기로 하고, 재집필 후에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재집필 요구 항목이 20% 이내의 원고에 대해서는 최초 원고량에 따라 접수 및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원고 접수 → 원고 교열”의 작업 흐름도를 “가접수 → 원고 교열 → 접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결정 사항을 1994년에 집필된 원고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1995년에 제출될 원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994년 말까지 접수된 원고는 10월까지 의뢰된 원고가 약 7만 항목인데, 그 원고료는 2억 6천 3백여만 원이 집행되었다. 11, 12월에 의뢰된 51,000여 항목의 원고는 1995년에 집행하기로 계약 이월된 것인데 예상 원고료는 약 1억 9천 2백여만 원이다. 따라서 1994년에 집행된 원고료의 총액은 계약 이월분을 포함하여 약 4억 5천 5백여만 원이 된다. 아래에 실제 집행된 원고 중에서 명사, 동사 각 1항목씩을 예시하기로 한다. 최종적인 출판 형태는 아니지만, “종합국어대사전”의 모습을 미리 알아보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집필된 원고의 예)

#! G-009483

#1 산수털-병거지

#2 山獸-----

#3 %

#4 「명」 산짐승의 털로 만든 병거지. 또는 그것을 쓴 사람. 예전에 관아의 하인들이나 군인들이 흔히 썼다. \= 두목들은 머리에 병거지를 썼을 뿐이고 여러 두령과 두시위는 「산수털병거지를」 쓰고 군복을 입었고 종사관 서림이는 탕건에 진사립을 눌러 쓰고 창의를 입었고 <<NAJAA032:387>> / 「산수털병거지의」 호령이 떨어지자 어머니가 선듯 일어서서 딸을 가르치며 <<NAJAA012:289>> \,\$

#5 %

#6 %

#! G-010019

#1 산재-하다02

#2 %

#3 -하여(-해), -하니

#4 「동」【(…에)】=> 산재(散在). \= 농경지는 삼림 내부에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으며 <<t320d010;163>> / 중국 대륙에 「산재하여」 독립 운동에 참여하던 수많은 청년을 모아 <<t300I021;149>> / 요즘은 밤중에 도타하는 소작 농민이 어찌나 많은지 버려 놓은 땅이 도처에 「산재한다」. <<nakaa011;137>> // 그것은 복잡하게 배치된 산맥의 제약으로 협소하고 「산재한」 모습으로 분포하고 있다. <<t320d010;080>> \&

#5 %

#6 %

#8 산재(散在).

4. 맺음말

지금까지 1994년에 이루어진 원고 집필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필자는 준비 작업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원고 집필 의뢰, 집필 원고의 접수 및 원고료 집행은 비교적 단순 반복 작업인 데 비하여 그 준비 작업은 “종합국어대사전”의 편찬 현황과 그 경과를 소개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전 편찬 작업은 일정한 해법이 있는 그러한 성질의 일이 아니다. 사전 편찬의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사전 편찬의 경험이 없었던 필자로서는 1994년의 작업 과정을 되돌아 보건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노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해법을 제대로 찾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움을 실토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평가에 맡기기로 하겠다. 단지,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서 많은 질책을 받아서 보다 나은 사전이 편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